

뛰임

[뽀]의 옛말

두 발을 모아 몸을 솟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몸짓을 뜻하는 말로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넘어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상징



(463-71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T | 031)727-2820 F | 031)727-4815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닫혀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른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 주는 것은
그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며
벽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겸합니다.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중에서



Contents | 2010년 05+06 창간호 |

창간특집

창간사	04
창간축사	06
KTTU 발자취	10

일하는 멋

KTTU 활동일지 1	KT노사화합 올레 한마당잔치	12
KTTU 활동일지 2	제 7회 위원장기 전국 조합간부 축구대회	16
KTTU 활동일지 3	UNI 통신 국제회의 / 백령지부 위로방문	18
여성만세	여성 조합원을 위한 비밀 상담소 개소	19
KTTU 포커스	희망을 위한 혁신 HOST 운동	20
KTTU 클릭	만화로 보는 HOST 운동	22
노동계 이슈	타임오프	24

사는 멋

KTTU 지부탐방기	전남지방본부 호남무선지부	26
Partner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KT링크노동조합	30
What's Up!	아이폰, 문화중심에 서다	34

즐기는 멋

Space Touch 1	KT스쿠버다이빙클럽	36
Space Touch 2	주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지 지리산 둘레길	38
Health	조합원 건강 시리즈_거북목 증후군	40

KT노동조합 소식지 2010년 05+06 창간호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KT노동조합의 허락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김구현 편집인 | KT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허진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노동조합 031-727-2820 발행일 | 2010년 6월 14일 (격월간) 기획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삼립인쇄 02-469-7111

더 가까이, 열린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및 임직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선두기업, 유무선 컨버전스 기업으로 성장한 KT 뒤에는 열정을 다해 묵묵히 땀 흘린 선배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T에서 꿈을 키워온 우리 곁에는 투쟁의 통로이자 울타리가 되어준 노동조합이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박수로, 때로는 원망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노동조합의 30년 역사는 KT의 자화상이자 우리 모두의 세월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합원의 희로애락의 현장을 역사로 잇기 위해 간직하는 작업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고유 책무일 것입니다.



“통신시장 변화에 발맞춰 노동조합의 소통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통신시장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시장 과열과 유무선 융합이라는 새로운 통신환경에 부지런히 적응하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변화한 만큼 노동운동 또한 혁신적인 체제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구호를 내려놓고 조합원·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보다 가까이에서 열린 마음으로 정체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으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래도록 고수해 온 신문형 노보의 발행을 격월로 줄이고 책자형 소식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방적·과거형 소식 전달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일상을 포착해 다양한 현장을 담은 생생한 이야기들로 채울 것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국민과 함께 숨쉬는 HOST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면 노동현장의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인 조합원과 고객인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KTF노조와 합병을 통해 KT노동조합은 더 젊고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까지 함께하고 배려하는 KT노동조합만의 독창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2010년 3월 'HOST운동'을 선언했습니다.

HOST운동은 화합(Harmony), 창조(Originality), 나눔(Share), 투명(Transparency)을 원칙으로 조합원을 주인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화합과 나눔, 상생의 노동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근본인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없이는 이 모든 활동이 모래 위의 성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불안한 노동환경에 굴하지 않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 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통신노동자들의 생존과 권익보장을 위해 KT 그룹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연대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흩어진 열 사람보다 뭉친 두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조직보다 탄탄한 인프라와 2만5천 조합원이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과 하나되어 새로운 노동운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꿈을 안고 전진하겠습니다.

“책자형 소식지가 열린 소통의 창구가 되어 화합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책자형 소식지가 열린 토론의 창구가 되고 화합의 터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식지는 조합원 여러분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비치해 놓을 방침이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수련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은 소식지 창간과 함께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그 동안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6월

KT노동조합 위원장 김구현



뜻 깊은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했고 또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출발이 바로 노사화합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KT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조합간부 여러분, 조합원과 함께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책자형으로 발간되는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T가족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노사가 한마음으로 화합해서 이루어나가는 KT의 새로운 노사문화가 우리나라 노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그간 대립 관계로만 인식되던 노와 사가 진정한 화합과 신뢰의 동반자 관계로 변화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한국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다른 나라보다 빠른 회복의 기틀을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노사문화를 가꾸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KT에 대한 국민의 의식 또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KT는 서서히 침몰해가는 “과거”의 기업이었습니다.

협력사 등 중소기업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변화했고 또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출발이 바로 노사 화합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KT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모처럼 뿌린 씨앗을, KT의 미래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큰 나무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퇴역한 노병의 자긍심과 열정이 결코 식지 않는 이유는, 일선을 떠나도 그가 피땀으로 지켜낸 국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KT를 세계에 우뚝 선 기업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면 KT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KT에서 얻은 역량과 대가가 인생에서 일군 가장 크고 훌륭한 자산이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영진 또한 노사상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KT노동조합 신노동운동 HOST를 적극 후원할 것이며, 노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뜻 깊은 소식지 창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KT 회장 이석채

노동조합의 변화와 쇄신을 완성하는 너른 소통의 마당을 기원합니다



KT노동조합 책자형 소식지의 재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노동운동 발전의 선두에 서온 KT노동조합은 이제 노동운동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HOST운동으로 그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찾고 변화를 완성시켜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87년 이후의 급속한 발전과 진보를 완성하지 못하고 정체와 퇴보의 진통을 겪고 있는 이면에는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 조합원들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들과 소통하지 않는 편견과 독선이 바로 노동운동을 위기에 빠트린 장본인입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다른 생각에 귀를 막는 소통 불능병과 급속한 산업·노동환경의 변화에 눈감는 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 조합원이야 어떻든 내 생각대로 한다는 독단적 태도로는 노동운동은 다시 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T노동조합이 새로운 운동이념의 선포와 더불어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노보를 새롭게 정비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노동운동의 화두 이전에 국가적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소통은 쉽지 않습니다. 소통을 해야 한다는 명제는 난무하지만 소통의 전제가 빠져 있는 탓입니다.

소통의 전제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동의나 동조와 다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생각을 들어보고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국내 단일 노동조합으로는 최대 규모의 조합원과 또 그 조합원 안에 다양한 직종, 다양한 연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과 행동양식의 차이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KT노동조합 책자형 소식지가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소통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그릇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막힘없이 흐를 때 하나된 의견의 도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말잔치를 위한 소통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변화와 쇠신을 위한 소통이라는 지향점이 명확할 때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많은 매체와 입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이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매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쪼록 새롭게 출발하는 KT노동조합 책자형 소식지가 일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보람과 애환이 담긴,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노동·생활·문화 전문지로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비전노동센터 소장 조자명

28년 KT노동조합의 과거와 현재

KT노동조합은 28년 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이후 공기업을 거치면서 2002년 민영화가 되기까지, 국내 노동운동의 모범이 되어 한다는 사명감을 토대로 우리나라 100년 통신역사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다. 특히 국내 최대 조합원 수에 기반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운동에서도 상당한 책임감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1982년 1월 설립된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전 임직원의 80%가 넘는 조직률을 보이는 국내 최대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매년 교통사고와 감전사고, 납중독 등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10여 명, 부상자가 100여 명에 이르는 등 당시 노동조건은 열악한 편이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이후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며 국내 노동운동은 본격화 됐고, 한국통신노동조합은 1994년 6월 1일, 직선제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해 노동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변화는 노동운동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5대 집행부는 민주노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에 정

부는 95년 한국통신노조간부들의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명동성당 안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1997년에 들어선 6대 집행부는 노동자들이 대 정부투쟁을 통해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투쟁을 한층 강화한 시기였다. 6대 집행부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IMF 체제에서도 사업구조조정과 인력구조조정 시행을 노사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7대 집행부 시기는 IMF 직후로 기업 안팎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노동조합은 인력감축을 위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사업분사에 맞서 2000년 12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5박6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힘겨운 싸움을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애썼다.

민영화 이후 2003년 들어선 8대 집행부는 노동조합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선교섭 후투쟁으로 기조를 바꾸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대화와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9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완전복지 실현을 위해 연금저축, 생활안정자금, 보육시설 확충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신설했다.

2009년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기조로 출범한 10대 집행부는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KT노동조합만의 독창적인 노동운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투쟁일변도 성향의 상급단체를 탈퇴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며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칠 것을 요구받아 왔다.

2009년 6월 KT-KTF 합병 후 노동조합은 2009년 7

월 임시조합원총회를 통해 95%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이후 전 조합간부가 합심하여 새로운 노동운동 전략 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해 왔다. 이어 노동조합은 7월 말 KTF노동조합과 합병했고, 중앙상무집행위원 내부토론 및 지방본부위원장 회의 등을 거쳐 2010년 3월 5일 KT노동조합만의 독창적 HOST운동을 선언했다.

HOST 운동은 Harmony(화합), Originality(창조), Share(나눔), Transparency(투명)를 결합한 약어로 KT노동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정신을 함축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HOST 운동의 일환으로 무료인터넷교육, 장학사업, 올레 한마당 잔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음은 물론, 안팎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1982 1대 최상용 위원장	1985 2대 최상용 위원장	1988 3대 최상용 위원장	1991 4대 정영수 위원장	1994 5대 유덕상 위원장	1997 6대 김호선 위원장	2000 7대 이동걸 위원장	2003 8대 지재식 위원장	2006 9대 지재식 위원장	2009 10대 김구현 위원장
---------------------------	---------------------------	---------------------------	---------------------------	---------------------------	---------------------------	---------------------------	---------------------------	---------------------------	----------------------------

KBS열린음악회로 시민과도 한자리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잔치

창 조적 신노사문화 및 HOST운동 확산과 임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KT노동조합의 '올레 한마당잔치'가 지난 5월 20일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치러졌다. 체육대회에서는 열띤 응원과 함성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장기자랑 프로그램에서는 임직원들이 숨겨진 끼를 발산해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KBS열린음악회, 올레밴드 공연, 행운권 추첨, KT 소닉붐 농구단 팬사인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임직원과 대전 시민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은 한마당

5,000여 명의 조합원 및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김구현 노동조합위원장과 이석채 회장의 기념식수로 시작된 올레 한마당잔치는 노사 상생과 화합의 한마당이며, 동시에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은 큰 잔치였다.

이날 참석한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KT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사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가 국내기업을 대표해 건강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초석을 다시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길 기원하며,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KT 최고의 유쾌한 역사적 잔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 역시 "그간 KT는 각고의 혁신을 통해 노사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면서 "노사화합의 올레 한마당잔치는 즐거운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족구 및 배구 경기와 장기자랑은 대전 인재개발원 곳곳을 뜨겁게 달궜다. 족구 경기는 12개 지방본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부산지방본부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시간 관계로 3판 2승이 아닌 21점 단판으로 결승전을 치른 부산과 강북 팀의 경기는 이날 최고의

명승부로 꼽힌다. 경기 초반 범실이 잦아 뒤지고 있던 부산팀이 강북팀을 극적으로 역전한 이후, 강북팀이 맹렬한 기세로 추격전을 펼쳤지만 승리의 여신은 부산팀에게 미소를 보였다. 배구 경기는 전남팀과 본사팀의 결승전 끝에 전남팀이 승리를 거두며 실내체육관을 함성으로 가득 메웠다. 배구 경기가 끝난 뒤에는 KT 소닉붐 농구단 선수들과 함께 팀을 나눠 자유투 성공 개수로 경품을 증정하는 농구이벤트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과 이 회장도 선수 및 직원들과 이벤트에 참가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잔디광장 무대에서는 임직원들





의 장기자랑이 이어져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다. 김인식(인재개발원 인

재육성담당)사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장기자랑에는 전국 지역본부의 12개 팀이 참가해 노래와 춤 등 각종 퍼포먼스로 임직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힘찬 음악에 맞춰 마음을 선보인 부산팀, 부드러운 음색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녹인 제주팀, 무대를 내려와 객석에서 노래했던 강북팀 등 각 팀별로 독특한 의상과 숨겨둔 끼로 매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장기자랑에서 우승을 거머쥔 팀

은 전북. 빨간 의상으로 먼저 시선을 끈 전북팀은 4명의 백댄서들이 열정적인 춤을 선보이는 가운데 가수 버금가는 실력으로 <사랑의 트위스트>를 열창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시상식에서는 우승 100만 원, 준우승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져 총 78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장기자랑 사이사이에는 행운권 추첨 이벤트도 펼쳐졌다. 사회자와 관객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기거나, 앉은 의자 위로 올라가 춤을 추면 경품을 증정한 것.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김 위원장과 이 회장 등이 직접 행운권을 추첨해 총 120여 명에게 경품이 돌아갔다.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청소기, MP3 등 경품도 푸짐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대전 인재개발원 입구에서는 KT 소닉붐 농구단의 팬사인회가 열렸다. 전창진 감독, 손규완 코치를 비롯해 조동현, 윤여권, 이상일, 박상오 선수 등 총 12명의 농구단이 KT 임직원과 대전 시민들에게 사인을 선사했다. 선착순 200명에게는 사인볼을 증정해 팬사인회가 시작되자마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대전 시민과 함께한 KBS열린음악회

올레 한마당잔치의 피날레는 KBS열린음악회가 장식했다. 대전 인재개발원 대운동장에서 저녁 8시부터 펼쳐진 KBS열린음악회에는 5,000여 명의 대전 시민과 KT조합원 및 임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석채 회장은 인사말에서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대전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열린음악회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대전 시민들이 KT에 보내주신 한결 같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KT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바리톤 김동규 씨와 소프라노 박미혜 씨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를 불러 KBS열린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이광조, 김혜림, 바비킴, 서유석, 캔 등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여 KT 임직원들과 대전 시민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특히 원더걸스가 ‘2DT(2 Different Tears)’라는 신곡을 불러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KT조합원 및 임직원, 대전 시민들의 질서적 박수와 호응도 만점짜리였다.



올레 한마당잔치 MINI 인터뷰

이번 KT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잔치에는 5,000여 명의 KT조합원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들, 체육대회와 장기자랑에 참석해 열정을 쏟아낸 이들과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대전에 올라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지만 활기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노동조합 관계자분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숨겨진 끼를 발견할 수 있었던 장기자랑도 재미있었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지방본부 제주마케팅팀 신제주지부 고정임 대리



“장기자랑이 가장 기대되는 행사 가운데 하나예요. 저희가 지난해 신입사원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후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기자랑 프로그램에 많은 신입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강북지방본부에 족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원더걸스가 나오는 KBS 열린음악회에도 꼭 참석할 거예요.”



강북지방본부 강북네트워크운용단지부 기업고객망팀 김민선 사원과 홍성미 사원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에 KT 임직원들이 대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려 즐겁습니다. 또 전국 각 지역본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제가 KT에서 10년 간 근무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노조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사지방본부 무선데이터/연구소지부 서비스인프라개발팀 김범석 과장



“초반에 열세였던 것을 극복하고 역전 우승하여 기쁨이 더욱 큼니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여 다음번에는 더욱 재미있고 활기찬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노동조합과 회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산지방본부 경남마케팅팀 남해지부 고철희 대리(족구 부산팀)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며 2주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해도 우승할 수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제가 노래를 잘했던 것보다는 뒤에서 춤을 추어준 4명의 댄서에게 이번 우승의 공을 돌리고 싶네요. 실력과 팀워크가 고루 갖춰진 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전북지방본부 전북법인단지부 북전주법인3팀 강은석 과장(장기자랑 전북팀)



투쟁도, 축구도 단결로 승리하자! 전국조합간부 축제 한마당

노동조합은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리산수련관과 인근 섬진강변에서 '제7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12개 지방본부의 500여 조합간부들이 대회에 참여해 "희망을 선도하는 강한 KT 노동조합 건설! 투쟁도, 축구도 총단결로 승리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2010년 '제 7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 우승팀(전북지방본부)

입소식, 첫날 HOST운동 교육과 간담회 열려
전국에서 온 조합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렁찬 함성과 함께 한통노조가를 힘차게 부르는 것으로 입소식은 시작되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면위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해, 향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위촉 의도가 우려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전 조합간부들이 일치단결해 향후 노사 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장인태 처장은 체육대회 일정을 안내한 후 "현장에서 고생하는 조합간부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반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입소식 후에는 차완규 정책기획실장의 'HOST운동'과 '노동법 개정 이슈'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차완규 실장은 HOST운동의 배경과 향후 노동조합의

운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조합간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이날 김해관 수석부위원장과 차완규 실장은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항목별로 조목조목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뒤, 현장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축구는 전북, 500m계주는 강남, 줄다리기는 부산 지방본부가 우승

본 대회는 이튿날인 7일 오전 8시부터 공기 좋은 구례 섬진강변 잔디구장에서 진행했다. 봄기운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쾌청한 날씨가 대회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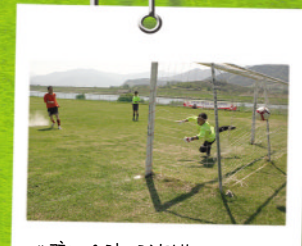
김구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 조합원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최근 KT를 다시 한 번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며 "쿡앤쇼가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하고, 스마트폰 열



섬진강 잔디구장에서 시작된 제 7회 위원장기 조합간부 축구대회 선수 선서식



섬진강 잔디구장에서 시작된 제 7회 위원장기 조합간부 축구대회 개회식



제 7회 위원장기 조합간부 축구대회 승부차기



우렁찬 함성으로 시작된 입소식



으쌰! 으쌰! 단결력 가늠의 척도 줄다리기



제 7회 위원장기 조합간부 축구대회 레딩슛



김해관 수석 부위원장 입소식 인사말



풍의 중심에 선 KT가 주파수 할당심사에서 기술부문 최고점을 받아 황금주파수로 알려진 900MHz대역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조합원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이어 "노동계의 일대변혁을 앞두고 단결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위용을 자랑하는 KT노동조합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초심을 잃지 말고 당당함과 투지, 강한 단결로 어떠한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일보할 수 있도록 조합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체육대회가 경쟁보다는 진한 동지애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단결과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500여 조합간부들의 열정과 투지로 가득 찬 축구대회는 시작부터 열기를 띠었다. A조 B조 두 팀으로 나누어 예선경기를 치른 끝에 전북지방본부와 강북지방본부가 대망의 결승전에서 만났다. 역동적으로 뛰는 선수들이나 경기를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는 응원단이나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두 팀의 경기는 1대 1로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마침내 전북지방본부가 영광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또한 A·B·C 세 팀으로 나누어 예선을 치르고, 각조 1·2위 팀 6명이 결승을 펼친 500m계주에서는 강남지방본부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꽃무늬 화려한 '몸빼' 바지가 바통으로 앞 주자가 짹째게 벗어주는 바지를 순식간에 갈아입고 맹렬하게 뛰는 선수들의 모습은 승부를 떠나서 웃음보따리를 선물했다. 줄다리기는 단결력 가늠의 척도! "으쌰! 으쌰!" 저마다 기운을 모으며 온 힘을 다한 줄다리기에서는 부산지방본부가 우승, 전남지방본부가 2위, 충남지방본부가 3위를 차지했다.

1박 2일 동안 함께하며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는 조합간부들은, 이번 축구대회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고 단결하며 KT노동조합의 신화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며 해산했다.



노동조합, 스위스 니옹서 열린 'UNI 텔레콤 월드 회의' 참가

KT노동조합은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니옹에서 개최된 UNI 텔레콤 월드 회의(UNI Telecom World Meeting 2010)에 참가했다. UNI 텔레콤은 130여 개 국가의 통신업계 3백만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단체로 통신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 협상 권한을 확장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대만·프랑스 등 24개국 통신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 KT노동조합에서는 김구현 위원장, 차연구 정책기획실장, 전명군 법규국장이 참가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단체협상 시 다국적 기업과의 협상력 제고, 보편적 인터넷서비스의 개발과 해당 분야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 노동조합 국제연대가 지난 1년간 초국적 통신자본에 맞서 펼친 활동보



미국, 영국, 한국 등 24개국 통신노동조합이 참가한 UNI 텔레콤 월드 회의

고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프랑스텔레콤, 포르투갈 텔레콤, 텔레포니카의 기존범용 및 합의를 강화하는 방안과, 도이치 텔레콤, 텔레노어, 텔레콤 말레이시아, MTN의 새로운 범용 및 지역적 합의서에 대한 협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전 참석자들이 참여한 패널회의를 통해 UNI 텔레콤 장기 지속 캠페인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중립성과 보편적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베르디의 신 조직화, 대륙에서의 통신의 조직화에 대한 문제도 집중 분석했다.

노동조합 간 연대를 높이고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식캠페인 수행을 통한 노동자의 등급분류 및 국내 상황을 국제적 전략으로 연결 ▲UNI 홈페이지를 활용 결속력 강화 ▲전자 책 발행을 위해 UNI 텔레콤 홈페이지 현행화 ▲전자 책 발행을 위해 10개 텔레콤 공지 완결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오는 11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릴 '제3회 UNI Global Union World Congress'의 프로그램과 2011년 멕시코에서 개최될 차회 미팅에 대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구현 위원장, 백령지부 위로방문

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은 지난 5월 26일(수)~27일(목) 1박 2일간 윤오원 사무처장, 장인태 조직처장과 함께 노동조합 서부지방본부 백령지부를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문경노 서부지방본부 위원장과 심홍신 백령지부장으로부터 백령지부의 현안과 고충을 보고받고, "힘든 때 일수록 더욱 심기일전하여 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 일정 : 2010. 05. 26(수)~27일(목)
- 장소 : 서부지방본부 백령지부



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지원 센터와 손잡고 여성만을 위한 비밀상담소 개소

노동조합은 지난 4월 KTTU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조합원을 위한 전용공간 '여성만세'를 오픈했다. 여성만세는 ▲여성상담소 ▲여성정보 ▲미즈톡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조합원들의 고충과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 특히 여성상담소는 여성조합원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직장 내에서의 진급 문제, 성희롱 등 무거운 고민은 물론, 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고충까지 질문영역에 구애 받지 않고 비밀리에 상담한다. 특히 여성상담소는 사생활 보장과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인노무사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상담실장과 민대숙 사무국장이 답변을 맡고 있다. KT여성조합원이라면 누구나 KTTU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2일 이내 답변)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창구(02-582-5054)도 열려있다.

- 상담 | 홈페이지 : www.kttu.or.kr
(홈페이지 접속 → 참여광장 → 여성만세)
- 전화상담 : 02-582-5054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마음속 고민까지 훌훌 풀어드려요!"

안녕하십니까, KT노동조합 여성 조합원 여러분! 회사생활 하면서 여성이 아니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화로부터 성희롱, 배치/승진/임금/정년 등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차별,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와 관련한 문제, 문제 제기 하기는 애매하지만 뭔가 기분이 나쁜 견고한 남녀 위계질서, 호칭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인 도움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툭 터놓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경험 많고 현명하고 입 무겁고 믿을 수 있는 여자선배가 있어 하소연도 하고 위로와 공감을 얻고 어떻게 대

처해야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다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든든하고 맘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여성국과 저희 여성상담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자 나섰습니다. "남자 선배가 저를 자꾸 쳐다봐요" 같은 애매한 문제에서부터 "어젯밤에 회식한 후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무거운 문제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만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조그마한 돌파구를 찾는 마음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여성노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철저한 비밀보장(상담 내용은 본인 과 상담자만 볼 수 있습니다)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제도적, 문화적 측면은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 이영희 노무사

조합원 ·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노동운동 혁신

HOST 운동이란...



'HOST'는 Harmony(화합), Originality(창조), Share(나눔), Transparency(투명)의 앞 글자를 딴 말로, KT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정신이며 합리적인 실천 방안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동자가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건 80년대다. 세계 노동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조의 태동기를 맞았다.

KT노동조합은 1994년 위원장 직선제를 통해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때로는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도 있었고 노노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상생과 연대의 길을 개척하며 한걸음씩 진보해왔다.

KT노동조합은 2009년 조합원 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함으로써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는 구태와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가진 노동운동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의 결과였다.

2009년 7월 31일 KTF노동조합과 합병한 KT노동조합은 연맹이나 연합체를 만들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 별도 세력을 규합해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제3 노동운동이 아니라 KT그룹사를 중심으로 연대 활동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공헌에 적극 기여하는 노동운동을 펼친다는 대 원칙을 세웠다.

노동조합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토론한 끝에 노동운동의 혁신적인 모델을 탄생시켰다.

노동조합은 3월 5일 서초동 KT 올레캠퍼스에서 김구현 위원장과 이석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HOST운동을 선포하고 이와 함께 ▲기업가치 창출 주도 및 항구적 노사평

화 유지 ▲고용안정 노력 및 노사공동 상생프로그램 시행 등 행복한 회사 실현 ▲사회적 책임 적극 실천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올레 KT 창조적 신노사문화 공동 선언'도 채택했다.

'화합'으로 찾아가는 상생과 연대의 길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갈 'HOST운동'은 크게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주인'.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모든 사업을 주도하고 사업의 중심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도움'. 세 번째는 '조합'으로, 한올타리의 집단적인 모체를 뜻한다. 개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단결된 조직을 통해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Harmony(화합)는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노동조합을 유지·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열린 소통, 수평적 의사 체계, 공공성 강화, KT그룹 노동자의 통합, 노사 상호존중 문화를 통해 반목과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민 3자 공동이익을 실현해나간다. 노사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상생프로그램으로는 ▲무료인터넷교육 ▲장학사업 ▲조합원 문화행사 ▲퇴직사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조합원의 만족도 향상이 최우선이라 판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전 임직원 중고생 자녀 대상 무료인터넷교육'을 추진, 4월부터 수강을 시작했다. 아울러 5월 20일에는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 잔치'를 열어 조합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했다.

Originality(창조)는 KT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운동이다. ▲현장과 함께하는 이동정책실 운

영 ▲노동 가치를 높이는 정책 자문기구 설치 ▲미래경영을 위한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 후원회 구성을 통해 KT노동조합만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다.

'나눔'으로 모두가 풍요롭게, 곳곳이 정의롭게!

Share(나눔)는 'HOST운동'의 핵심이다. 기존 상급단체 지원금과 조합간부 후원, 회사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킴이 ▲사회적 기업 지킴이 ▲녹색지킴이 사업 등을 운영한다.

사회적 약자 지킴이 활동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대상 불우이웃돕기, 취약계층 장학사업, 인터넷무상교육, PC지원 및 1년 사용료 지원, 비정규직돕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소년소녀 가장 지킴이'는 노동조합이 예산전액을 부담하는 활동으로 60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이 모시는 직계어른의 상조비로 연간 1억 원을 보조한다.

이미 지난 4월 시작한 '장학사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취약계층 고등학생 총 21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45만 원씩 연간 3억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인터넷 무상교육'은 취약계층 중고생 각각 2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을 전액 무료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며 '비정규직 돕기'는 형편이 어려운 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정, 분기별로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지킴이는 총 266개 사회적 기업의 생활용품 등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제공에 참여하는 나눔 운동이다.

Transparency(투명)는 투명한 집행력과 노동조합 간부의 도덕성 강화를 촉발한다. ▲재정자립 위원회 설치 ▲경영참여 외국투자자본 방어/경영 감시 ▲IT산업 노동자통합 연대조직 건설을 통해 공정한 집행과 신속한 정보공유, 횡적인 연대강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실현과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지키는 길을 찾는다.

2010년은 'HOST운동'의 원년이다. KT노동조합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화합과 상생과 나눔의 길을 넓혀나갈 것이다.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노동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헌신을 다할 것이다.

HOST운동은 KT노동조합의 새로운 목표이고 약속이며 희망이다.



3월 5일 신노사문화 공동 선언식

만화로 보는 HOST운동



KT 노동조합



HOST운동은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KT노동조합의 신노동운동입니다

Harmony(화합)
Originality(창조)
Share(나눔)
Transparency(투명)



87년 체제와 97년 체제, 그리고 2010년 '타임오프 체제'

'찬바람' 맞고 초심 회복할까, 코포라티즘에 묻힐까... 갈림길에 선 노동운동

● 해묵은 쟁점이 정부의 의도대로 일단락됐다. 올해 1월 1일 새벽,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3년간 유예됐던 노조법상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다만, 일부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가 도입됐다. 예컨대 노사교섭·협약,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관리업무는 타임오프 한도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다. 단체협약에 관련내용이 명시돼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87년, 97년에 이은 세 번째 변곡점

2010년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타임오프 도입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97년 외환위기에 이은 세 번째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타임오프 체제'다. 87년 체제는 전투적·투쟁적 노동운동의 상승·고양으로 나타났고, 97년 체제는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출발점이 됐다.

2010년 타임오프 체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현재로서는 노동운동의 하락·침체와 노동 유연화 가속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타임오프 체제는 단순히 전임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돈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는 활동과 정책의 문제로 이어진다. 돈 때문에 노동운동이 후퇴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은 그런 '순수한 바람'을 비웃는다. 코포라티즘(노사협조주의)은 이미 국내 노사관계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다.

교섭은 철저히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을 뛰어넘는

연대투쟁은 가뭄에 콩 나듯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제외하면 지난 수년간 발생한 대부분의 파업은 개별 사업장 노조나 기업별 노조에서 벌어졌다. 노동조합의 연대파업은 정치파업으로,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

2010년 타임오프 체제가 군사정권의 후퇴를 이끌어 냈던 87년 체제의 성과를 박제화하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97년 체제의 한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후상박' ... 타깃은 상급단체·대기업노조

전체 전임자 규모는 타임오프 한도 외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 근로자위원을 별도로 보장받더라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면위도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굳이 '하후상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타임오프의 타깃은 누가 봐도 상급단체와 대기업노조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던 상급단체(특히 민주노총)와 대기업노조의 전임자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이 '찬바람'을 맞고 나면 초심을 회복하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게 가능할까. 재정자립금이 부족한 만큼 활동가들이나 조합원들의 자발적 헌신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운동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노동운동은 전임자임금과 관련해 노사 자율교섭을 요구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전임자임금을 입법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노동운동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97년 노동관계법에 전임자임금 금지조항이 명시된 이후 13년간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방어적·수세적 대응'에 급급했다.

김대중·노무현 '하드웨어' 활용하는 이명박 정부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노동운동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총체적인 '내부 위기논쟁'에 시달렸다. 87년 체제의 핵심인 현장성이 퇴화한 데다, 민주정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시장 유연화, 노동 유연화를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완성된 법·제도적 '하드웨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대표적인 하드웨어가 금융시장 개방, 정리해고제 도입, 단기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구조조정, 파견·기간제 확산 등이다. 노동운동은 내부 위기논쟁을 치유하지 못한 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야 할 하드웨어가 완비된 탓에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웨어'만 손대면 되는 셈이다.

노동운동이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거치면서 '단결'보다는 '분화'를 계속해 온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유연화 드라이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상층 단위 교섭을 통해 전임자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한국노총-한나라당의 정책연대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 중 하나에 불과했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2년간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근면위에 잠시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무엇보다 현장 조합원들이 '전임자임금 투쟁'에 나서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동운동 전체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이명박 정부 의도대로 개정됐고, 원치 않았던 타임오프 체제로 접어들었다.

선택은 현장 조합원들의 몫

노동운동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코포라티즘의 과실을 향유하면서 단맛에 취할 것인가, 아니면 '찬바람'을 맞으면서 초심을 회복할 것인가. 노조법은 어차피 재개정될 것이다. 노사관계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조합원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연대의 정신을 회복할 때, 사회구성원들이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이해할 때, 나와 내가 아닌 '우리'의 노동운동이 펼쳐질 때 노조법은 자연스럽게 재개정될 것이다.

2010년 타임오프 체제는 노동운동에게 묻는다. 87년 체제는 고리타분한 노사갈등을 부추겼고, 97년 체제는 어정쩡하지 않았냐고... 그러나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나의 품에 안겨 쉽게 살아라"고... 선택은 현장 조합원들의 몫이다.

월간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박 윤

※ 외부 인사는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뚝뚝 뚫었다!

전남지방본부 호남무선지부



지부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 약 35세. 한 명의 사람으로 친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열정적인 청년인 셈이다. 전남지방본부 호남무선지부의 형상우 지부장을 비롯한 130여 명의 이야기이다. 한 자리에 모이면 거침없는 의견과 주장이 오가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는 형제자매의 우애와 친구의 의리가 공존한다. 젊은 그들이 뚝뚝 뚫었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전라남도 광주에 자리한 호남무선지부를 찾아간 것은 햇살 좋은 봄날이었다. 지부 사무실로 들어서니 형상우 지부장과 이성빈 조직부장, 김병우 복지부장, 이현호 사무부장이 그날 날씨만큼이나 밝은 얼굴로 맞이한다. 부서장은 이날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황진주 여성부장까지 더해 총 4명이다. 다른 지부들의 경우 교육홍보부장, 쟁의부장, 조사통계부장 등의 부서장이 따로 있지만, 호남무선지부의 지부장과 부서장들은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왼쪽부터 전남지방본부 김원택 조직국장, 이성빈 조직부장, 형상우 지부장, 김병우 복지부장, 이현호 사무부장

만큼 일당백의 정신으로 호남무선지부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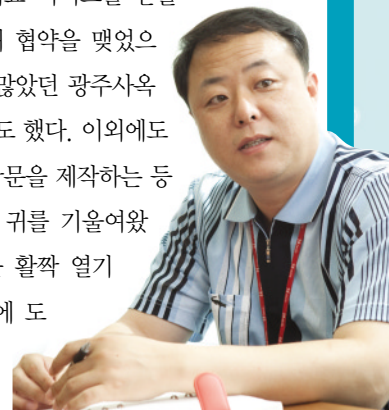
호남무선지부의 조합원 수는 135명, 매장관리와 홍보 등을 담당하는 마케팅단 그리고 기지국 등의 시설과 장비의 인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네트워크운영단으로 나뉘어 있다. 조합원 수가 적은 편이지만 그 범위만큼은 어느 지부보다 넓다.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권 전체와 제주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으니 각 지역을 찾아가 간담회를 한 번씩 여는 것이 고될 법도 하다. 그렇지만 형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애경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만큼 지역이 넓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해 KT와 KTF가 통합되면서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가 변화를 겪어야 했다. 회사의 경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전과는 달리 제약 사항들이 늘어나고 의사결정의 단계



와 절차도 복잡해졌다. 사소하게는 복리후생비까지 줄어든 형편이란다. 부서장들은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가족적인 분위기였는데, 조직의 몸집이 불어나니 각 지부간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호남무선지부의 형 지부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은 변화된 조직의 관계망 속에서 각 지부 및 상하부 조직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왔다. KT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즉 ‘대가족’에 소속되어 더욱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호남무선지부는 각 팀별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분기마다 노사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시켜왔다. 조합원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선별해 협약을 맺었으며, 그간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광주사옥의 구내식당 업체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옥 교환실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제작하는 등 조합원들의 사소한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왔다. 여성 관련 문제에도 귀를 활짝 열기 위해 황 여성부장의 주도 하에 도시락 간담회 등의 여성모임도



형상우 지부장을 따라 조합원들이 모여 있다는 볼링장과 호프집을 찾았다. 볼링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소리, 일과를 마치고도 힘과 활기가 넘치는 모습에서 젊은이의 패기와 뜨거운 열정이 돋보였다. 잘할 때도, 실수를 할 때도 서로를 위한 응원과 박수는 끊이지 않는다. 술잔을 나누면서도 더욱 단단해지는 그들의 결속력과 서로에게 건네는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호남무선지부의 밝은 미래가 엿보인다.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젊고 패기 넘치는 조합원들 덕분이다. 이현호 사무부장은 “호남무선지부의 젊은 조합원들은 해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주저하는 경향이 없으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거침이 없다”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던 사옥 교환실의 창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과 부서장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단합을 위해 모여 있다는 광주 시내의 한 볼링장을 찾았다. 함성을 지르며 볼링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그렇게 즐거워 보일 수가 없었다. 매일 등산, 볼링, 탁구, 여행 등 주제를 달리해 동호회 활동을 하는 ‘테마동호회’도 지역별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건네는 박수와 응원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 더욱 큰 힘을 발휘하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MINI 인터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마당쇠 정신으로 뛰는 호남무선지부 형상우 지부장



형상우 지부장이 본격적으로 조합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3년 KTF 노동조합 시절 대의원을 맡게 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5년부터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의 집행부 ‘역할론’은 기본에 충실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해요”라면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과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제 역할이겠죠”라고 말했다. 호남무선지부를 탐방했던 날, 볼링 시합을 마치고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조합원들이 형상우 지부장에 대해 한 마디씩 평가를 했다. ‘마당쇠처럼 부지런하게 모든 것을 살핀다’, ‘힘든 일에는 언제나 앞장선다’, ‘숫자 1처럼 깨끗하게 어디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강직하다’, ‘형님처럼 조합원들을 감싸준다’ 등 애정과 신뢰가 묻어나오는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형 지부장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러한 ‘칭찬’은 그들의 바람이기도 하며, 지부장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묵직한 책임일 것이다. 그날 많은 수식으로 지부장을 칭찬하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그 ‘칭찬’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렸다. 형 지부장은 “호남무선지부의 가장 큰 장점은 젊고 패기 넘치는 조합원들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행동함으로써 제게 힘을 실어주었고 저는 그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라며 겸손을 아끼지 않았다.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는 말을 아꼈다. 공허한 약속보다는 그때그때의 행동으로서 말을 대신하겠다는 굳은 다짐인 것이다. 호남무선지부의 젊음과 황 지부장의 열정이 만나 앞으로 또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 지부탐방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우리지부를 자랑·소개하고 싶은 조합원께서는 연락주시시오.
문의 : KT노동조합 031)727-2852, malin@paran.com



미래와 희망, 노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니다

KT링크스노동조합 이삼재 위원장



올해는 공중전화 관리뿐 아니라 물류사업에 진출, 조합원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KT링크스노동조합 사무실. 입구부터 마치 사랑방처럼 푸근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까지는 불과 5분이면 충분했다.

호탕하고 밝은 웃음, 힘 있게 맞잡아 주는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이삼재 위원장 이하 조합원들의 인간적인 열정을 짐작케 했기 때문이다.

공중전화 앞에 즐서던 일은 추억으로...

1988년 8월, 체신공제조합에서 분리되어 한국공중전화관리(주)로 출범한 후 지금까지 공중전화 관리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KT링크스(KT Linkus). 그러나 1인 1휴대 전화 시대로 접어든 2000년 이후 공중전화 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매출 하향세가 거듭되면서, 1998년 연간매출 8,000억 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회사는 경영 악화가 지속됐다. 55만대에 달하던 공중전화는 10만대 미만으로

줄었다. 이에 2001년부터 KT링크스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자체 진단에 의해 준비된 대안으로 시작된 KT텔레캅 사업은 영업에서부터 설치공사, 청소용역, 무인공중전화 업무까지 전 조합원들이 손수 일선에 나서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어떻게 하든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뭉쳐 새로운 희망을 위해 무던히 애쓴 결과, 다행히 텔레캅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입자 수가 20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2005년, 22.8%까지 불가피하게 임금삭감을 받아들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T텔레캅은 2007년 11월 15일자로 KT링크스로부터 분리됐다.

조합원 고통분담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렇듯 거의 매년 지속되던 경영혁신 속에서 이삼재 위원장에게 좋았던 기억을 묻는다면 그것은 무례한 요구일지



오른쪽부터
이삼재 위원장
이종석 부위원장
김일만 정책실장
이성덕 교육선전실장
김태엽 조직쟁의실장

모른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까맣던 머리가 하얗게 됐다”며 웃음 짓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이삼재 위원장은 2006년 12월 10대 위원장으로 선출, 올해 2월 23일자로 재임한 지금까지 2008년 12월 경영혁신으로 인한 129명 명예퇴직이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법규에 의해 기관통신 역무 중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어 있는 공중전화사업을 경영 논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토로했다. 공중전화만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부기관에서 국민복지차원에서 다루야 하는 문제이지, 영리목적으로 다루기에는 트렌드가 이미 지났다는 설명이다.



물류사업 진출은 고용안정 위한 필연적 길

“핸드폰 4,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핸드폰이 불통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근로자, 어린이 등 사회취약계층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공중전화의 연간매출은 600억원 이상입니다. 70원으로 환산해보면 엄청난 인원이 사용하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공중전화의 유지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KT링크스노동조합은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컨설팅을 의뢰해 ‘공중전화 서비스의 적정성 유지와 운영대책’에 대한 분석 자료도 내놓았다.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KT링크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800명 남짓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 물류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젊은층 트렌드에 맞춰 이미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라바짜(Lavazza)’와 손잡고 프리미엄 원두커피 자판기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물류사업으로의 진출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KT링크스가 물류사업에 진출할 경우 신규 채용 확대는 물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비전 안기는 노동조합 만들 터

KT링크스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이삼재 위원장은 한마디로 “직원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희망과 비전을 안겨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것.

“조합원들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직장, 자긍심과 희망이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평생직장으로 회사에 들어왔지만 성장과 미

래보다는 경영불안,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으로 민심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피폐한 민심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힘든 고비를 겪어왔던 조합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앞서기 때문일까. 이삼재 위원장은 현 집행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부족하다’는 말로 대신한다.

“KT링크스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회사의 빛나는 미래와 기회를 후배들에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문화 또한 틀을 깨야 합니다. 비록 일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양심을 속이거나 직원들에게 신의를 잃어버리는 조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시대에 맞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KT그룹노조협의회 연대로 더욱 강해질 것

KT링크스는 의지를 다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사가 힘을 합쳐 서로에게 희망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다. 이제 서로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대화를 통한 투명 경영 실천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노사가 화합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때만이 기업 가치는 높아지고, 결과는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KT그룹노조협의회’를 통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회사와의 단체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

KT링크스노동조합이 물류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힘찬 발걸음에 파이팅을 보낸다.

● **KT링크스노동조합은** 1982년 3월 ‘체신공제조합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시작, 강남현 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제1대 집행부가 구성됐다. 이후, 1988년 8월 1일자로 체신공제조합에서 분리되면서 한국공중전화관리(주)로 독립해 ‘한국공중전화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대, 6대 위원장을 역임한 김성태 위원장을 국회의원으로 배출한 조합이기도 하다. 2001년 6월 4일, 현재의 ‘KT링크스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후, 2006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이삼재 위원장이 10대를 거쳐 11대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현재 5개의 지방본부와 47개의 지부에 조합원 수는 총 695명이다.

● 급변하는 통신·노동환경에서 연대와 단결만큼 노동운동에 힘이 되는 것이 또 있을까. KT노동조합은 그 동안 KT계열 자회사 노동조합(KT링크스노동조합, KT텔레캅노동조합, KT데이터시스템노동조합, 콧노빙에프노동조합 등)과 ‘KT그룹노조협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 왔다. KT그룹노조협의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각 단사별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를 찾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KT그룹 전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간 벽을 허물고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KT그룹 노동조합만의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펼치기 위한 일환으로 그룹사 노조 탐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아이폰, 문화의 중심에 서다

“아이폰 괜히 샀어~ Bump로 내 폰 연락처 다 감시하고, iPTT로 내 위치 실시간 중계하래~
괜히 샀어~ 나 어떡해…….” 뽀롱뽀롱~

이쯤 되면 아이폰 앱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을까. 디지털 혁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동시 업무가 이루어지고
기업과 개인의 경쟁이 가능한 세상. 평평한 세계의 한가운데 ‘앱스토어’가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앱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 본다.



30대 중반의 회사원 김원우씨

● 아이폰의 기본 앱을 충실히 사용
하려 했지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 아침에 Sleep Cycle에서 울려 주
는 음악 소리에 일어나서 밤새 미국
에서 발송된 E-Mail을 확인합니다.
출근하면서 iKoway를 보며 다음 지
하철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하며 역
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지요.
지하철에서는 매일경제 뉴스 앱을
다운받아 그날의 실시간 뉴스를 읽
어 보며 회사로 출근합니다.

● 회사에 도착한 뒤 메일 확인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중간중간에는 주가
를 확인하며 동생에게 보내 줄 용돈
을 하나은행 앱으로 보내 줍니다. 업
무가 지루할 때는 Tweetie2를 사용

하여 트위터를 즐깁니다. 일과가 끝
나고 퇴근 무렵에는 네이버의 실시
간 검색어 앱을 통해서 하루의 트렌
드를 봅니다. 친구들과 대화가 안되
면 안 되니까요.

● 집에 와서는 스피커에 아이폰을
꽂아 두고 충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
고 지친 몸을 달랠니다. 저녁에 잠이
들 무렵에는 낮에 하던 Tweetie2를
하거나 Facebook 앱을 통하여 멀리
있는 친구들과 안부를 묻습니다. 그
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My
diary를 사용하여 기록하며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Sleep Cycle의 알람
시간을 셋팅하고 잠이 듭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강원씨

● 저에게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
이 아니라 소중한 다이어리이기도

하구요, 든든한 매니저이기도 합니
다. 사용한지 두달 만에 이제 아이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아침에는 Sleep Cycle Alarm 어
플이 제 수면 상태를 체크해서 가장
수면 정도가 약할 때 깨워줍니다.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구요, 일어나자
마자 하는 일은 밤 동안 저의 수면 그
래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열어서 오늘 일정을 확인
하구요, Todew로 해야할 일이 무엇
인지 확인합니다.

● 버스를 타야 될 경우에는 '부산버
스' 어플을 켜서 얼마 후에 버스가 도
착하는지 확인하고, 시간 맞춰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나서는
Moodagent 어플이 그 날 제 기분에
맞는 음악을 알아서 선곡해서 들려
주고요. 그러다가 Wake up Now 어
플이 알아서 도착지에 근접하면 깨

워 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도
합니다.

●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Todo Pad
에 오늘의 학습량을 미리 저장해 두
고 하나씩 해 나갈 때마다 체크박스
에 확인합니다. Study Time 어플은
엠씨스퀘어와 같이 뇌파를 보내주고
요. Streaks 어플은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마다 달
력에 X표를 해 줍니다.

● 자 기 전 에 는
Momento 어플에다
일기도 쓰구요. 잠이
안 오면 Sleepmaker
의 Stream 버전으로
'Gentle mouth of
brook'로 맞추면 되구
요. 다시 Sleep Cycle
Alarm을 켜 두면 내일
또다시 좋은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 웬지 하루를 너무 아이폰과 붙어
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
에서 나가자마자 버스가 도착할 때의
쾌감, 하루 계획했던 일을 모두 체크
박스 눌렀을 때의 느낌 그리고 아침
에 매일매일 정말 기분 좋게 일어나
는 건 정말 색다른 경험입니다. 저는
매일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www.ucnnews.com
문화춘뉴스



바다 속 여행, 함께 하실래요?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항상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을 선사한다. KT스쿠버다이빙클럽의 김민철 과장도 여행을 즐긴다. 하지만 그의 여행은 조금 색다르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바다 속. 요즘 그는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 스쿠버다이빙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한 여름을 방불케 하는 어느 따사로운 봄날, 서초동 올레캠퍼스의 본사지방본부 무선데이터/연구소지부(개인고객부문 M라이프 사업팀) 김민철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의 잠수풀을 찾았다. 지난해 사내 동호회인 KT스쿠버다이빙클럽에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딴 이후 중급 과정에 해당하는 어드밴스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이다. 기초 자격증만으로도 강사의 도움 없이 세계 곳곳에서 마음껏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은 바다 속으로의 여행이 그에게 끊임없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김 과장이 스쿠버다이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면서부터이다. “스노클링을 즐기며 들여다본 바다 밑의 세계는 신비롭고도 경이로웠어요. 이후 해양생태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등을 보면서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졌죠. 그러다가 지난해 사내 사이트에 KT스쿠버다이빙클럽의 교육 공지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신청했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이제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김 과장은 어느새 스쿠버다이빙 전도사가 되어버렸다. 아내인 송유경 씨도 그의 핏(?)에 넘어가 올해 3월부터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해 현재 기초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정도이다. 앞으로 KT스쿠버다이빙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기



다이빙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란다. 스쿠버다이빙이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스쿠버다이빙은 수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이빙용 수트를 입으면 부력이 생겨서 가라앉고 싶어도 몸이 물 위로 둥둥 뜨게 되지요. 20kg이 넘는 공기통을 메고도 허리에 납덩이를 두르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아내인 송 씨도 장비에 대한 불신이나 두려움은 괜한 걱정이란다. “워낙 장비가 안전한테다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낮아요. 버디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속에서 두 명씩 짝지어 활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KT스쿠버다이빙클럽은 사내 동호회이기는 하지만 공인 자격증을 갖춘 전문 강사진이 있어 이곳의 교육 프로그램만 충실히 이수한다면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이론교육을 받고 3회 정도 잠수풀에서 수영장 교육을 받고 나면 곧바로 바다에 나가게 된다. 잠수풀에서는 먼저 얕은 곳에서 수트만 입고 물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공기통 등의 장비를 메고 입수하는 방법과 간단한 수신호 등을 배운 후 조금씩 깊이를 더해가는 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서 빨리 바다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지경이라고.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김 과장의 욕심은 어드밴스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해양사진촬영에 있기 때문이다. “사진도 좋아해서 이를 스쿠버다이빙과 접목시키고 싶어요. 어드밴스 과정을 마치고 마스터 과정은 물론 강사 자격증까지 딴 후에는 바다 속의 신비를 사진으로 남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 목표이자 꿈이지요.” 그러나 KT조합원들과 직접 바다 속을 여행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터. 김 과장은 “저의 즐거움을 아내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한 번 경험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여행에 동행하실 분 없나요?”라며 그날도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을 건넸다.

KT스쿠버다이빙클럽

지난 2000년 1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사내동호회이다. 회원 가운데 전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2007년부터 사내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1년에 3~4회 정도 스쿠버다이빙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37년 가까이 KT에 근무하고 지난해 퇴직한 사무원 정홍렬 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 회장과 함께 광화문 법인지사의 이기택 과장이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사내 게시판에 기초교육 공지가 올라와 있을 때 주저 없이 신청하는 것.

문의 : club.paran.com/ktscuba

※ 소개를 원하시는 KT 사내 동호회나 건전모임, 독특한 취미를 가진 조합원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KT노동조합 031)727-2852, mabin@paran.com

지리산 800리, 나를 찾아 에돌아가는 길



바야흐로 걷기가 대세다. 생각하고 느끼는 걷기를 통해 건강을 도모하는 신인류 문화건강족 ‘호모 워커스(walkers)’ 까지 등장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다비드 르 브르통의 말처럼 걷는 것은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하며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순례 여행이다.

자연다운 자연, 사람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수평의 길

지리산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은 3개 도(전남, 경남, 전북), 5개 시·군(구례, 하동, 산청, 함양, 남원), 16개 읍·면과 80여 개 마을을 품고 있는 800리(약 320km)길이다. 현재 남원 주천에서 경남 수철까지 71km가 개통되어 있다. 2011년까지 나머지 길을 정비하여 완성할 예정이다. 지리산 둘레길의 공식명칭은 ‘지리산 숲길’. 사단법인 ‘숲길’에서 속도의 문화를 느낌과 성찰의 문화로, 수직의 문화를 수평의 문화로 되돌리자는 소망을 담아 만들었다. 둘레둘레 둘러보며 느릿느릿 걸어야 길의 제 멋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흠냄새 풀냄새 실컷 맡고 꽃바람 솔바람 쐬며 걷다 보면 굳어 있던 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마음의 주름이 펴지며 기운이 되살아난다.

이 길의 가장 큰 매력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다. 걷기를 위해 인위적으로 닦은 길이 아니라 옛길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마을길·고갯길·숲길·강변길·논둑길·농로길·제방길·고샅길 등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다. 침침산중 비탈진 산길부터 탁 트인 들길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물길, 고즈넉한 산골마을 돌담길까지 다채로운 길들이 이어져 지루할 새가 없다. 곳곳에 잘 보존된 역사의 흔적과 문화유산은 걷는 길에 의미를 더해준다.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고 건강하게 삶을 일구는 주민들을 만나 정을 나누는 재미 또한 각별하다. 어머니 같은 지리산이 마을을 품어주었듯이, 넉넉한 인심으로 길손을 품어준다. 호젓한 마을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다보면 고향에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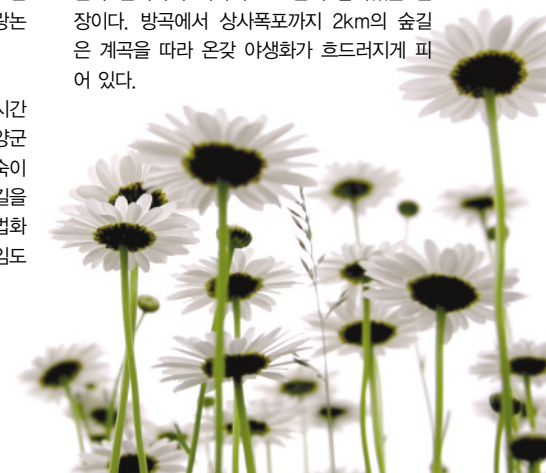
듯한, 외갓집에 온 듯한 기분이 절로 든다.

지리산 둘레길은 한없이 자유로운 길이다. 구례, 남원, 하동, 산청, 함양 어느 마을에서든 마음대로 걷기 시작해 걷고 싶은 만큼 걸으면 된다. 공식 야영지가 없으므로 야영과 취사가 안되며 편의시설이 드물다. 출발하기 전에 가고자 하는 구간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 ‘숲길’ 홈페이지(www.trail.or.kr)에서 구간 지도 및 각종 교통편과 식당·숙소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전북 남원시 인월면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산길 안내센터(☎063-635-0850)에서도 지도와 지역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길을 걸어볼까? 둘레길 구간 정보

- **운봉~인월 구간** ◎거리 9.4km ◎소요시간 4시간 ◎전북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와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를 잇는 길. 너른 운봉들녘을 따라 지리산 서북능선과 백두대간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다. 10km 전 구간이 제방길과 임도로 되어 있어 여럿이 함께 걷기에 좋다. 황산대첩비, 국악의 성지, 송흥록 생가 등 역사·문화 유산이 많다.
- **인월~금계 구간** ◎거리 19.3km ◎예상시간 8시간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에서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를 잇는 길. 옛 고갯길 등구재를 중심으로 지리산 주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길이다. 제방길, 농로, 차도, 임도, 숲길 등이 전 구간에 고루 섞여 있어 마을과 산과 계곡을 즐길 수 있다. 넓게 펼쳐진 다랑논을 보는 것만으로 즐거운 길.
- **동강~수철 구간** ◎거리 11.9km ◎예상시간 5시간 ◎경남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와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를 잇는 길. 청정 계곡을 따라 걷는 산길로, 4개의 마을을 지나 산청에 이른다. 방곡마을은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이다. 방곡에서 상사폭포까지 2km의 숲길은 계곡을 따라 온갖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 **주천~운봉 구간** ◎거리 14.3km ◎소요시간 6시간 ◎전북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외평마을과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를 잇는 길. 해발 500m 운봉고원의 너른 들과 6개의 마을을 잇는 옛길과 제방길로 이어진다. 옛 운봉현과 남원부를 잇던 옛길이 지금도 잘 남아있다. 특히 구룡치와 솔정자를 잇는 회덕~내송까지의 옛길(4.2km)이 수려하다.
- **금계~동강 구간** ◎거리 15.2km ◎예상시간 6시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와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길.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 마을과 고즈넉한 숲길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이다. 등구재와 범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임도가 일품이다.



현대인의 직업병, 너도나도 '거북목'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 815명 중 82.3%가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거북목 증후군'이 64.1%로 가장 많았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목을 쭉 빼고 고개를 내밀게 된다.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지속되면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일자목 형태가 되는데, 결국 어깨와 등이 결리고 뒷목이 빠근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것이 '거북목 증후군'이다. 심한 경우 허리 통증과 함께 '근막통증 증후군'이나 '목디스크'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자가진단

바르게 선 자세에서 앞에서 봤을 때 귀의 중심이 어깨 중심선보다 2.5cm 이상 앞으로 나와 있다면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예방과 치료

거북목 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다. 먼저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춘다. 항상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활짝 펴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1시간 작업 후 10분 간 쉬는 습관이 필요하다. 틈틈이 목을 가볍게 돌리거나 주무르고 스트레칭 한다. 직장인들의 만성적인 목 빠근함과 '거북목 증후군'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한다.

01



준비 자세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양 손으로 허리를 짚는다.

02



고개를 앞뒤로 숙이기

먼저 천천히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인다. 지그시 숙이면 등뼈를 따라 엉덩이까지 자극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어 뒤로 지그시 숙인다. 아랫배 근육까지 자극이 간다.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다. 3회 정도 반복한다.

03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이어 고개를 숙인 뒤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 어깨 너머를 넘겨본다고 생각한다. 원래 위치로 돌아온 뒤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본다. 동작을 3회 정도 반복한다.

04



고개를 어깨 쪽으로 숙이기

고개를 왼쪽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숙인다. 이때 반대쪽 옆구리에까지 은은히 자극이 오도록 한다. 이어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인다. 3회 반복한다.

05



고개 돌리기

고개를 숙인 뒤 왼쪽으로 3회 오른쪽으로 3회 천천히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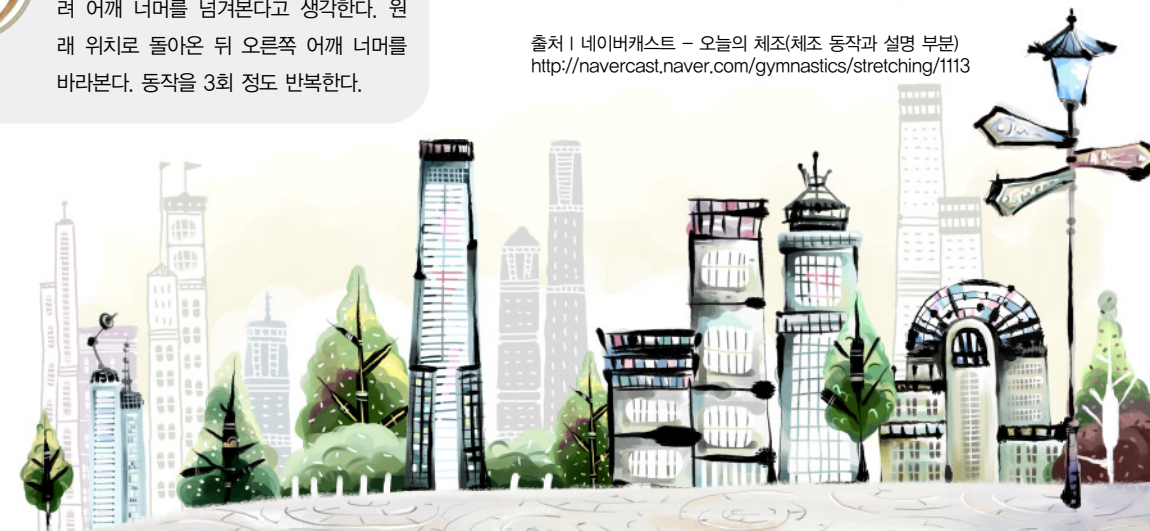
06



목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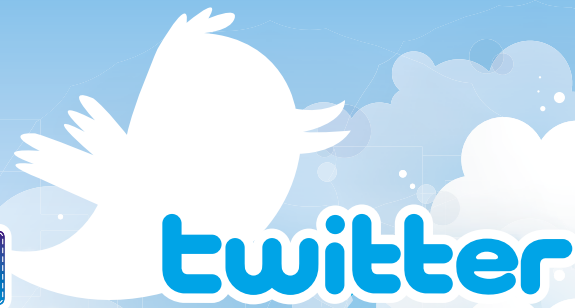
두 손을 뜨겁게 비벼 세수할 때처럼 목을 마사지 한다.

출처 | 네이버캐스트 - 오늘의 체조(체조 동작과 설명 부분)
<http://navercast.naver.com/gymnastics/stretching/1113>



트위터, 무작정 따라하기

트위터 완전정복을 위한 실전 가이드(한글트위터 twtkr.com 기준)



미국의 음식전문잡지 '푸드 앤드 와인'은 2010년 최고의 새 요리사로 '고기 비비큐(kogi BBQ)'의 로이 최를 선정했다. 로이 최는 푸드트럭으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돌며 한국식 타코(멕시코 전통요리)를 판매했다. 하루에도 두 세 번씩 자리를 옮기지만 손님들은 용케 트럭을 찾아왔다. '트위터(www.twitter.com)' 덕분이다. 그는 트럭이 이동하는 시간과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실시간 업데이트했다. 손님들은 트위터에 접속해 트럭의 이동시간과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줄을 서서 기다린다. 영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판매 장소가 바뀌어도 문제될 건 없다.

짧은 글(최대 140자)을 통해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팔로우(follow)'들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트위터의 위력이 놀랍다. 출범 4년이 안된 지난달 이미 1억 500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한 트위터. 이쯤에서 트위터 열풍에 슬며시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 여기 트위터 완전정복 가이드만 잘 따라한다면 당신도 이미 트위터러(twitterer, 또는 트위터러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트위터 가입하기

트위터(www.twitter.com) 또는 한글트위터(www.twtkr.com)에 접속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입력 후 가입 → 로그인 뒤 오른쪽 상단 사람찾기(Find People)에서 친구 맺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팔로우(follow)하면 된다.

“이것만 알면, 나도 트위터 전문가”

트위터 개념 이해하기

- **팔로우(follow)**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팔로우'
- **팔로워(follower)** (follow) 할 수 있다. 'follow'
- **팔로잉(following)** 즉, '뒤따르다', '유심히 지켜보다', '귀를 기울이다'의 사전적 의미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가 A를 '팔로우(follow)' 하는 순간, A는 나의 '팔로잉(following)' 대상이 되고, 나는 A의 '팔로워(follower)'가 된다. 내가 A를 팔로우하면 A가 올린 글을 내 트위터의 'Tweets(타임라인)'에서 구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린 글은 나를 팔로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내가 A와 B를 동시에 팔로우하고 있다면 A가 B에게 리플라이한 것도 내 타임라인에 올라온다.
- **리플라이(Reply)** A가 올린 글에 답장을 하고 싶다면 '리플라이(Reply)'를 누른다. 글 입력창에 '@상대방 아이디' 뒤이어 답글을 쓰면 된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는 셈이다. 화살표를 누르면 해당 트윗 아래로 입력창이 나타나고 상대방 아이디도 자동으로 입력된다.
- **리트윗(Retweet : RT)**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이 한 말을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팔로워)에게 전파하고 싶다면 리트윗(RT)하면 된다. 'RT@원작자 아이디: 원문' 형식으로 표시된다.
-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특정 이슈나 제품에 대한 트윗을 트위터에서 한 눈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뒤에 키워드를 다는 식으로 표시한다. 자기소개를 올리는 해시태그도 국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소통은 상호 변화와 발전의 토대입니다!

창간호 작업을 마무리하며...

흡혈박쥐는 40시간 이상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만약 이렇게 죽어가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박쥐들이 조금씩 자기 피를 토해 나눠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입자를 쏘고 죽는 벌의 희생, 머나먼 길을 서로 도와 가장 과학적이고 최선의 형태인 V자로 날아가는 기러기 등. 우리가 흔히 냉엄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알고 있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고도의 협동정신과 이타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진화생물학자는 이를 두고 소통을 통해 협동하는 개체가 살아남는 진화의 섭리라고 합니다.

소통이란 이처럼 이해와 협력은 물론, 더 나아가 발전과 생존으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전개과정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일방적인 보고와 전달에 그쳤던 기존 노보의 한계를 벗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노동조합의 위상처럼 노보 역시 격월간 책자형으로 탄생,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첫 시도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통의 장에서 우리 조합원들 모두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노동조합의 작지만 새로운 시도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6월 10일 새벽

KT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허진

제호공모 뒷 이야기

노동조합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이메일을 통해 책자형 소식지의 제호를 공모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창간호 지면을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제호와 그 숨은 뜻까지 정성스레 의견을 보내 주셔서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 회의를 거치며 고심 끝에 제호로 정한 뽕의 옛말 **뽕**은 두 발을 모아 몸을 숙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뽕짓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높은 곳으로 오르는 KT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위상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끝까지 많은 고민을 안게 만든 의견 중에는 밝은누리(조합원들에게 전하는 밝은 소식, 용기를 주는 소식), 다운(좋은 모든 일들이 다 온다), 라온(즐거움), 메신저(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 강조), 옛

지(본연의 뜻은 모서리, 칼날, 면도날 등인데, 뽕족하게 솟아있다는 표현 그대로 '침단'의 뜻도 포함하고 있음), 별 하나(우주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하나의 별이라는 의미로 중요성 강조), 희망통신(미래의 가능성과 기대를 전하는 소식지로서의 목적을 강조하는 제호)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 밖에 KTTU, 판, 희망 HOST, 한길 또는 한길인, OPEN, HUMAN, 새로운 소통, 열린 소통, 길동무, 동행, 반려자, 올레 KTTU, 굴렁쇠, 어울림, 바라바, 봉수대, 올레테, 희망, 헬로, 길, 원두막, The Together, The True, The Blank, Space 등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책자형 소식지 제호를 위해 참신한 의견을 보내 주신 조합원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자형 소식지 **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